2009 문화계 결산 (상) 미술

올 한해 광주·전남지역 미술계의 핵심 이슈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에날레(9월18일~11월4일)의 성공 이었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역시 가능성을 보였고, 연극 등 지역 공연계도 활발히 움직였다. 또 문단에서는 김경욱, 정유정씨 등 이 지역 출신 젊은 작가들이 유명 상을 휩쓰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올 한 해 지역 문화계를 미술, 공연, 문학·출판 등 총 3회로 나눠 돌아본다.

2009년 광주·전남 미술계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과 함께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친 한 해였다. 사진은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모습. 〈광주일보 자료〉

디자인비엔날레 세계가 주목

대인시장 문화명소로 …젊은작가 해외활동 활발

경기 침체에 화랑가 작품거래 뚝 '썰렁한 한 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한옥 등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디자인비엔날레가 흥행과 예술성을 겸비한 명품 전시로 발전했다. 또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잇따라 러브콜을 받으면서 고부가 문화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밝게 했다.

신종플루 확산 속에 예년 보다 관람객은 다소 줄었지만 전시 기간 동안 20여 만명이 전시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가족단위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고, 관람객들은 차분한 가운데 세계 디자인 축제를 즐겼다.

또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이장우 가옥이 문화 명소로 재탄생하고, 사직동 팔각정이 리모델링 되는 등 광주 도심 곳곳이 화사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하는 성과도 올렸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이들 언론들은 "한옥, 한글 등 한국의 문화 유산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는 독특한 기획이 인상적"이라며 극찬했다.

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광주가 아닌 국내외에 다시 선보이는 '전시 수출'의 닻도 올렸다. 네덜란드 디자인협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7개국 관계자들이 러브콜을 받았다.

디자인 상품화도 이어졌다. 디자인비엔날레 '음식' 섹션에 소개된 '요리요정 라쿠쿠'는 오는 28일 웅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됐다. 또 '한글' 섹션의 '한글 퍼즐'도 이 지역 디자인업체인 인스나인(황인옥 대표)이 생활 도자기로 상품화했다.

지역 작가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씨는 대한민국미술인상 청년작가상을 받고,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부인 세리여사에게 작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서양화가 이매리씨도 뉴욕 텐리갤러리에서 '여성의 힘과 이매리'(10월5~26일)전을 열어 미국 내 유명 평론가와 미술 잡지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진원장, 최재영, 박수만, 정운학, 정광희, 김숙빈, 조강현씨 등은 독일에서 열린 '쾰른아트페어21'(10월15일~11월1일)에 참가해 유럽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현대미술의 중심인 중국 베이징 따산쯔 환티에(環鐵) 창작예술지구에 창작센터를 열고 김해성, 전현숙, 조강현, 김진화, 김일근씨 등 5명의 작가를 입주시킨 것도 올 한 해 미술계가 거둔 큰 성과이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올 초 대인시장 빈 점포를 작업실로 만들어 40여 명의 작가를 입주시킨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작가와 관람객들이 어우러진 대인시장은 광주의 대표 문화명소가 됐다.

반면, 경기침체로 지역 화단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작품 거래가 뚝 끊기고, 서둘러 전시회 계획을 접는 젊은 작가들도 많아 지역 화랑가는 썰렁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나인갤러리 양승찬 관장은 "일부 작가들의 경우 전시회를 열어도 작품 한 점 팔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면서 "새해에는 지역 미술계의 외적인 성장과 함께 젊은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내적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해서·전서·예서… '묵향잔치'

학정 이돈흥 제자들 연우회전

17~23일 유스퀘어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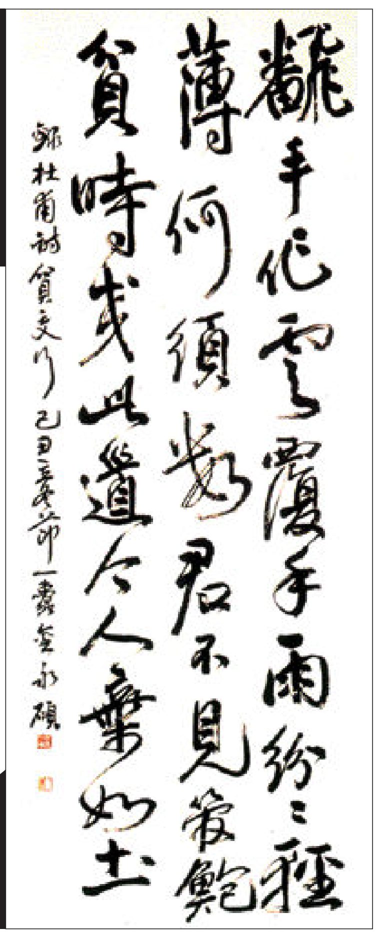
해서·전서·예서·초서·행서·한글 등 묵향 그윽한 다양한 글씨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학정 이돈흥씨로부터 서예를 배운 제자들의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영석)가 17~23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33회 연우회 서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석, 김영환, 이상백, 김재승, 정재석, 장옥순, 이순례, 최경순, 송수옥, 위전환, 문경남, 선양규씨 등 회원 122명이 변화무쌍한 서예작품과 문인화, 전각 등을 선보인다.

지난 1975년 발족한 연우회는 197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진주, 중국 등에서 순회전을 했다. 또 지난해 중국 북경대학 서법예술연구원의 서예가들과 '한중서법교류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360-847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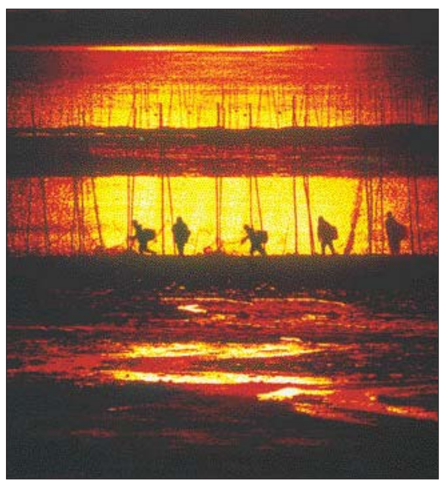


▶ 김영석 작 '두보 시'

남도에서 포착한 '생명'

19일까지 빛고을 사진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안판종 작 '도리포의 일상'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는 빛고을사진회(회장 안판종)가 15~1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회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구중식, 조영선, 황현배, 고광중, 채길량, 박영철, 조순성, 윤진석, 선광술, 박희혜, 강남순, 선정민, 정병두, 전호경, 김상균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영산강 일대, 전남 지역 장터, 풍물공연 등을 포착한 작품과 생명의 소중함이 물씬 풍기는 자연 생태계를 찍은 사진을 선보인다. 채길량씨는 영산강변 유채밭을 환상적인 색감으로 연출했고, 조순성씨는 노성 녹차밭의 푸른 빛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문의 062-380-88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 김덕령

일곡도서관 주부연극단 창작극…내일 무대에

호남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연극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북구일곡도서관(관장 황은주) 주부연극단이 창작한 설화와 연극의 만남 '아! 김덕령'이 16일 오후 7시30분 도서관 1층 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김덕령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휘하에서 의병장 곽재우와 협력해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한 의병장. 주부연극단은 김덕령 장군을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설화와 유래를 공부했으며 수차례 유적지를 답사하는 열정을 보였다.

또 광주북구일곡도서관은 이번 공연을 위해 회원 20여명을 모집 '설화와 연극의 만남-주부연극교실'을 운영해 왔다.

주부연극단은 지난 2007년 광주일곡도서관 일곡문화의집 동아리모임으로 지금까지 실버연극 '갓쓰네','임신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등을 무대에 올렸다. 현재 주부를 중심으로 회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화의 집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체육 관광부 후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문의 062-575-3457~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17일 올 마지막 공연

매주 목요일 국악공연을 펼쳐온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열린 국악 한마당'이 2009년 마지막 무대를 마련했다.

17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가야금앙상블 '그린나래', 퓨전밴드 '신시악 프로젝트', 포크록 그룹 'Brother sun Sister moon'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 '동프라'가 꾸민다.

이들은 '문리버' '오버 더 레인보우' 등 귀에 익숙한 레퍼토리와 이번 연주를 위해 창작한 대피리·기타·드럼 등이 어우러진 창 '무제', 해금 곡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가야금 곡 '안개숲'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또 춘향가 중 '쑥대머리', 비틀즈의 '렛 잇 비' 등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